

신기한 겨자씨 이야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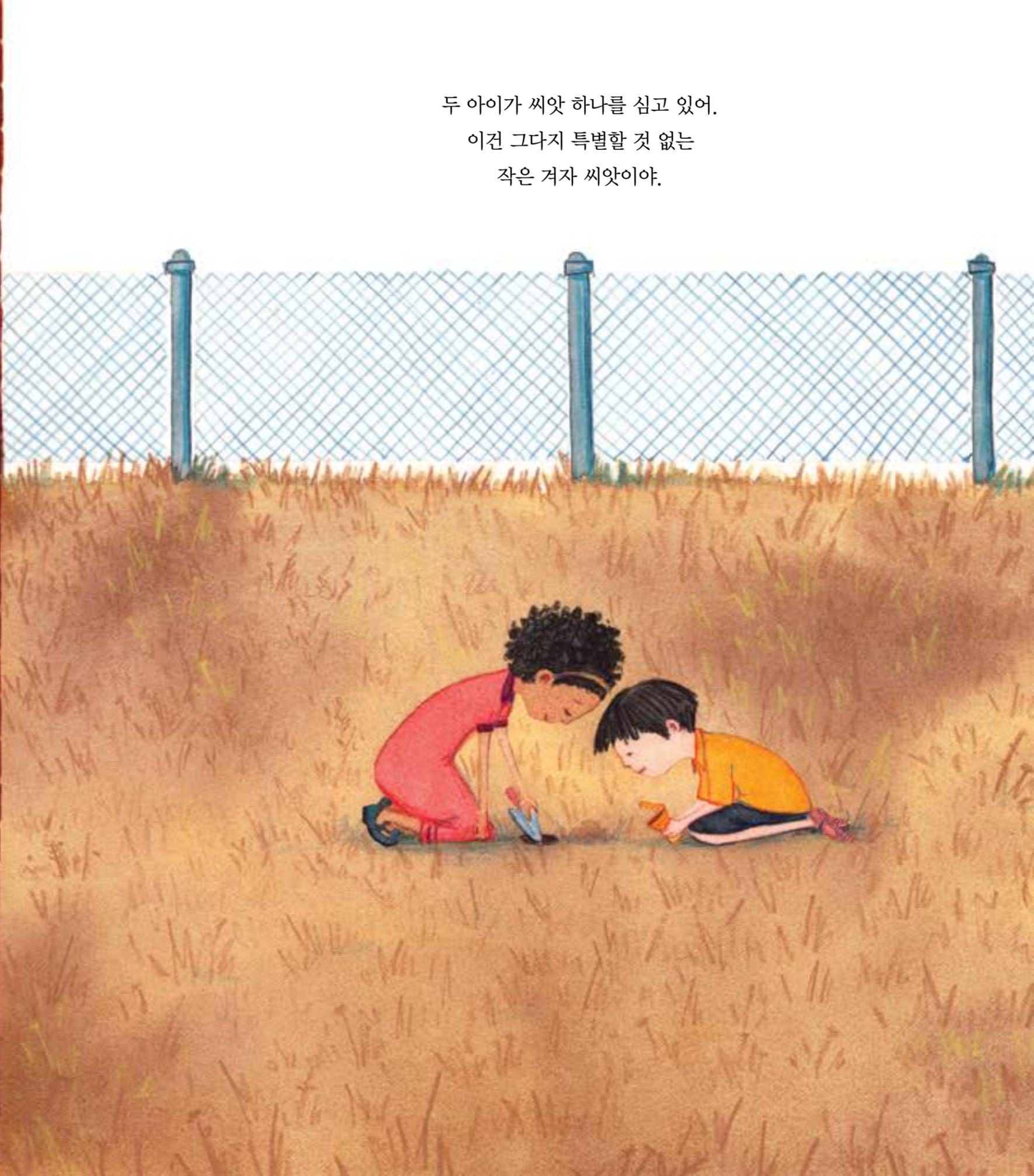


에이미-질 리바인,
샌디 아이젠버그 사쏘

그림: 마고 메강크



두 아이가 씨앗 하나를 심고 있어.
이건 그다지 특별할 것 없는
작은 겨자 씨앗이야.



겨자씨가 궁금하다고?
그렇다면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.
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거든.



아주아주 가까이 다가가야 볼 수 있어.



그런데 이 조그만 씨앗 하나로 무얼 할 수 있을까?



먹을 수도 없고



껴안을 수도 없고



머리에 쓸 수도 없고



글씨를 적을 수도 없고

비누방울을 만들 수도 없지.

데리고 산책을 할 수도 없어.



하 지 만

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어.

그래,

흙 속에 꼭꼭 심는 거야.



비가 내리고,



햇빛이 비치면



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.